

18. 사가독서를 하다.(40세)

*사가독서賜暇讀書：

임금의 명으로 홍문관의 젊고 유능한 인재들에게 특별 휴가를 주어 독서당에서 글을 읽게 하는 제도



(동호독서당)

독서당은 국가의 인재를 기르기 위해 만들었다.



극히 엄선한 인재들에게 휴가를 주어 번갈아가며 글을 읽게 하니



여기에 선택되면 영광스럽기가 그지없었다.

가문의 영광으로 눈이 빠지게 글을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사람, 책 안 읽고 또 어디 갔나?

글세요.





상감께 고자질해야
겠어. 자리만 차지하고
종일 안보이잖아!

선발된 후에는
규칙을 어기는
자가 많았는데



퇴계는 늘 자기 차례가 오면 반드시 가서
글 읽는 일에만 몰두했다.

술 한잔
하러 가세.

노 탕큐.



같이 갑시다.



술 마시면 뭐합니까?
독서당에 가서 읽던 책이나
마져 읽겠습니다.

또 독서당?



난 책 속의 이치를
알아가는 것이 술보다
더 재미있답니다.

정말
못말려!



뽕혀온 벼슬아치들이 학문보다 술과
음풍농월로 규정을 어기기 예사였다.

*음풍농월: 맑은 바람과 밝은 달 속에서
시를 지으며 즐긴다.

한 잔 쭈욱
들자구!

시 한 수 읊고
나서, 꺾!

독서당에서 늘 단정한 모습으로 앉아 독서하는 사람은 퇴계 뿐이었다.



나라님이 마련해 준 이 좋은 공간을 나라도 이용해야지요.

그때 지은 시가 있다.

어이 배나무 선생, 와서 한잔 하자구.



답거나 추우나 술을 마시며 옆 동료들이 날 비웃네. 나를 손가락질하며 담장 구석에 붙어 선 두구루 배나무 갈다 하네

퇴계는 다른데 가지 않고 늘 독서당에 기거하였고 때로는

다음 주 독서당 당번이죠? 내가 대신 서 줄까요?



그래만 주신다면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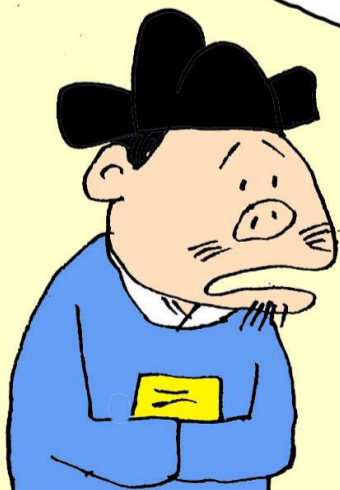
다른 사람의 당번도 기꺼이 서 주었다.

이런 것을 일석이조라 하지. 인심도 쓰고 공부도 하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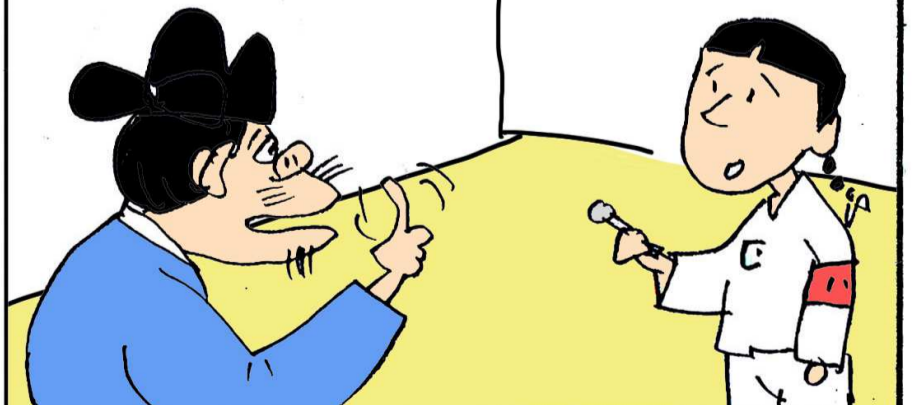
당시 독서당 관리자가 진술하는데.

독서당을 가장 많이 애용한 사람이 누구냐구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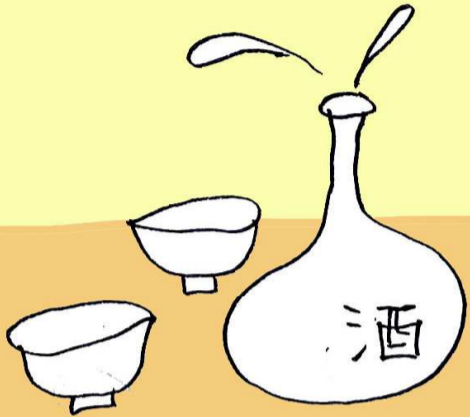
그것이 알고싶냐?

퇴계가 단연 탑이죠. 남들은 독서하러 와서는 즐거나 농담과 우스개소리로 소일하는데...





독서당에 뽑힌 대부분의 사람들이 술과 풍류에만 빠져 즐길 때,



빈 독서당을 퇴계 홀로 지키며 혼자 당직을 맡아 할 때가 많았다.



남들이 싫어하는 것을 왜 하느냐 하면...



그곳에서는 시간이나 업무에 구애받지 않고 학문연구를 깊게 할 수 있어서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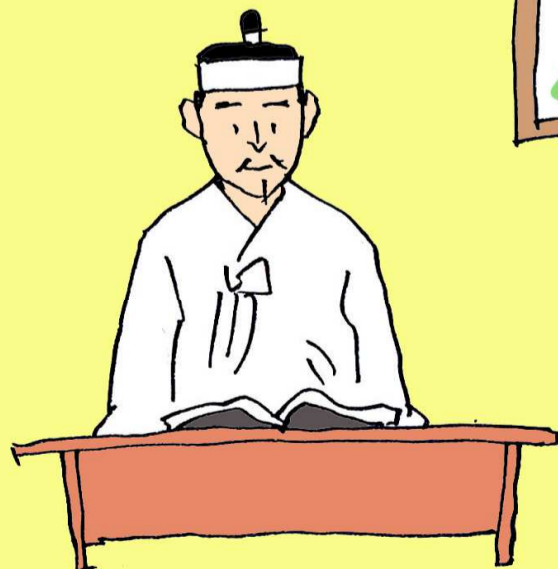


학문에 목말라하고 있던 퇴계에게는 더없이 좋은 기회였던 것이다.

直內方外
日乾夕惕

일진내방외
일건석척

直內方外: 안을 곧게 하고
밖을 방정하게 하고
日乾夕惕: 종일토록 힘쓰고
저녁까지 조심한다.



*퇴계 선생이 29세의 학봉(鶴峯) 김성일(金誠一)에게 병풍으로 써서 준 명(銘).